

새 출발 의재미술관 재도약 꿈꾼다



'그림의 본으로 삶의 본이 되다'전에서 만나는 의재 작품.



2001년 문을 연 의재미술관이 개관 이래 처음으로 외부 관장 이선옥 미술사가를 영입,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20여년만에 이선옥 미술사학자 외부 관장 영입 4월까지 '그림의 본으로' 전... 16일·4월 3일 특강

'산수화 속 키작은 집.' 무등산 자락에 등지를 튼 의재미술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만나는 글귀다. 의재미술관은 우리나라 남종화의 대가 의재(義齋) 허백련(1891-1977) 선생을 기리는 미술관으로 지난 2001년 문을 열었다. 의재 선생은 무등산 자락 출신현에 거거하며 많은 작품을 완성하고 후학들을 길렀다. 미술관 인근엔 의재 선생의 숨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춘설현과 의재묘소도 자리잡고 있다.



학사에서 미술사로 석사학위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조선시대 매화도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우봉 조희룡-19세기 목장의 영수(돌베개 간)로 인천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우현 학술상을 받았고 '사군자-매란국죽은 피어난 선비의 마음'(돌베개 간)도 출간했다.

현재 열고 있는 전시는 '그림의 본으로 삶의 본이 되다'(4월30일까지)전이다. 전시실에서 만나는 그림들은 미완성의 느낌이 난다. 의재 선생의 낙관이 찍히지 않은 작품들은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직접 그려 본을 보인 체본(體本)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인 체본 가운데 화조와 사군자 3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어 흥미로운 전시이기도 하다.

스승과 한 공간에 앉아 도제식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의재의 제자들은 스승이 그린 그림을 모사하거나 몇번이고 그리며 그 뜻을 이으려했다. 단순히 작품만을 모사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스승이 그리던 모습을 보며 그림의 형태, 그리는 순서나 붓놀림, 호흡까지도 함께 익히며 화가로서의 자세도 배워나갔다. 제자들은 화가로 성장한 후에도 스승의 체취가 담

긴 체본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 전시작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재 선생의 체본 가운데 가려뱌었다.

전시 중에는 이선옥 관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서 두 차례 특강도 진행한다. 강의 주제는 '우리 그림 속의 사군자'(16일 오후 2시-2시30분), '우리 그림 속의 화조화'(4월13일)다.

이 신임관장이 의재문화재단 등과 협의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2001년 문을 연 건물은 시설이 낙후돼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무등산 등산객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이 찾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고민중이다. 차량 통행이 금지된 무등산 주차장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지라 여름철에는 더 고역이다.

이 관장은 우선 문을 담은 문향정 찾집을 다시 열고 춘설현 투어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이 친숙하게 미술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와 연관된 특강 역시 좀 더 많은 이들이 미술관을 찾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했다.

또 의재와 전국의 작가들이 교류하며 남겼던 그림들을 모은 '의재와 친구들'(가제) 등 다양한 기획전도 구상중이다. 이관장은 "전통회화인 수묵화의 본질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게 남도이고 그 중심이 바로 의재선생님"이라며 "의재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품격있는 전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의재미술관은 한국화(수묵·채색), 미디어 및 도자, 이론 및 문화예술기획 등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자 4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문의 062-222-304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공간-생명력 Space Vitality'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화양연화'

강남구전 11~28일 강진 아트홀·28일까지 담양 남촌미술관

화사한 매화꽃이 화폭 가득 피었다. 자유 자재로 뻗은 굵은 나무 줄기 위에 얹힌 붉고 하얀 매화꽃들이 화려하게 그치었다. 오랫동안 매화 작업을 해온 서양화가 강남구 작가가 강진 아트홀(11일-28일)과 담양 남촌미술관(28일까지)에서 동시에 초대전을 갖는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일컫는 '화양연화(花樣年華)'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작인 매화 연작과 함께 모란, 칸나, 해바라기 등 꽃과 싱그러운 석류, 다채로운 풍경을 담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공간-생명력 Space Vitality' 연작을 통해 매화를 꾸준히 그리고 있는 작가는 400년된 고매를 만날 수 있는 화순 임대정 원림, 담양 지실마을의 매화 등을 찾아 수차례 발품을 팔았고 꽃이 모두 떨어져 가지만 남은 모습, 꽃이 만개한 모습 등 각기 다른 풍경들을 눈과 마음에 담아 화폭에 풀어냈다. 특히 강진아트홀에 내걸린 200호 대작은 담양 독수정 원림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수백 년 세월을 거슬러 푸른 이끼를 등

에 업은 오래된 매화 가지는 담백한 파스텔 톤 배경 아래서 존재감이 두드러지며 눈꽃이 날리는 듯한 화려한 매화꽃은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수많은 공을 들여 일일이 화면에 올린 매화꽃 한송이 한송이는 함께 어우러지며 화려함을 보여준다.

강남구 작가는 "매화는 우리들의 삶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끼가 긴 거친 나무의 표피에서 세월의 풍파와 연륜을 느낄 수 있고 거칠고 투박한 선들에서 꽃이 선사하는 향기와 부드러움, 그 속에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작가는 지금까지 35회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SOAF, 아트광주, 부산국제아트페어 등 700여차례 단체전, 초대전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 심사위원을 역임했고 한국전업작가협회, 광주 등 각기 다른 풍경들을 눈과 마음에 담아 화폭에 풀어냈다. 특히 강진아트홀에 내걸린 200호 대작은 담양 독수정 원림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강진아트홀 061-430-3972, 남촌미술관 0507-1406-432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이선옥 관장의 포부

미술관 보수·접근성 제고
문향정 찾집 다시 열고
춘설현 프로그램 운영
'의재와 친구들' 전 구상 중
'의재 정신 발현시킬 품격있는 공간 만들 것'

내 안에 누군가 사는 거 같아요

논다 연극 '오 나의 귀신님' 이달까지 상무 기분좋은극장

극단 논다의 로맨스 연극 '오 나의 귀신님'이 오는 3월31일까지 광주 시 서구 치평동 기분좋은극장에서 상연된다.

1시간 40분 동안 달콤하지만 살벌한 로맨스를 펼치는 이 작품은 '귀신'을 부탁을 들어주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전개된다.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로맨스작가를 꿈꾸는 재림 앞에 갑자기 처녀 귀신 선화가 나타난다. 그런 와중에 자신

의 이름을 포함해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별도 재림을 찾아와 자신의 기억을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재림과 귀신은 한별의 기억을 함께 찾아주기로 한다.

이승재(재림), 김산하·김미리(한별), 권현진(선화), 윤태용·최성환(1인 다역)이 출연한다.

만 13세 이상 관람가. 전석 3만5000원.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3시·6시, 일요일 오후 4시(월요일 휴무).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